

보건간호 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보사부간호사업과 보건간호계장〉 이 표 회

I. 서 론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여러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국민보건 문제가 국가 정체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나라들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과거의 소국적 인·치료의학 의존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예방의학적 노력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119개의 보건소와 1341개의 보건지소가 완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급진적인 보건의료망의 확장에 따라 일어나는 절실한 문제는 운영예산 확보와 더불어 자격있는 보건요원(保健要員)의 확보인 것이다. 특히 보건요원 중 보건간호원은 health team의 일원(member)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직접적인 보건봉사를 하든 요원인 고로 오늘날 공중보건 사업의 한 중요한 담당자로 등장해 뇌었고, 또한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WHO 간호전문위원회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보건간호 사업은 영리를 떠난 개인, 가족,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볼 구의 교정을 위한 간호기술을 포함한 의학적, 위생학적, 사회학적 행위의 응용이며, 가정에서의 환자간호를 포함하는 간호의 특수분야라고 하였다.

이상 정의한 것과 같이 보건간호사업은 과거 가정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부터 전체 보건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보건간호원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보건간호원 제도를 따라 가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II. 보건간호 교육면에서의 문제점과 미래상

보건간호 교육면에서의 문제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보건간호원 훈련 또는 교육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보건간호요원의 훈련사업은 보건간호 사업이 처음 소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과거 많은 사람들이 국내 국외에서 보건간호를 출학하였다. 또한 최근 1969년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내에 보건간호 연구과정을 설치하여 지도자급 보건간호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보건간호원 양성 상황을 보면 다음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금전씨 저서에서 인용)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보건간호원이 이미 양성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보건간호원 훈련과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기초간호 교육과정 내에 공중보건학이 강화되지 않은 점.

이금전씨 조사에 의하면 (1955~1963년) 각 간호대학 및 간호학교 과정에서 보건간호학의 강의가 30~45시간, 실습이 60~250시간 포함되어

보건간호원 훈련 실적

기 관 병	연 대	기 간	인 원
1. 외국 선교사기관	1923~1940	10~15일간	미 정
2. 군정시 간호사업국 보건간호과	1945~1948	45~60일간	미 정
3. 중앙간호연구원	1954~1957	1년	30 명
4. 국립 중앙보건소	1958~1960	2개월	미 정
5. 국립 연구원	1961~1968	3개월	731 명
6. 서울대학 보건대학원	1967~1969	1년	68 명
7. 해외장학생(미국, 빌리핀, 인도, 일본)	1955~1963	3~1년	34 명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68년도 보건사회부 조사에 의하면 간호학과에서는 강의 98시간에 실습 208시간, 간호학교에서는 강의 64시간에 실습 116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1955년에 비해 1963년에는 훨씬 많은 시간의 보건간호학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나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비전공한 교직자가 대부분 보건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보건간호교육을 담당한 대부분의 교직원이 보건간호에 대하여 경험이나 보건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급번 전국 간호학교 보건간호학 교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35개교중 보건간호학을 전공한 교사가 14명, 즉 40%에 해당하며, 60%는 비전공한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3. 이론과 실습이 병행치 못하고 있는 점.

각 간호학교의 교과과정 내에는 보건간호 실습이 평균 2주~5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론과 실제 경험이 병행치 못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의 일월, 시설, 업무의 미비로 제대로 실습을 하지 못하도록 실체에 있어 일선 실무경험이 결여되는 점이 많다.

4. 전공한 보건간호원들이 빈번히 타부야로 이동하는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나 1952~1965년간의 국립보건원 차등호씨

조사에 의하면 330명의 국립보건원 수료자중 240명인 72.7%가 보건소 근무이며, 이중 75명인 22.7%가 3년동안에 전보 또는 사직했음이 밝혀졌다. 현재는 해외진출 등으로 그 수는 더 적증되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해외파견 장학생인 경우에도 귀국후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율이 47%이고, 53%가 전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수 이상이 타분야로 전향했음이 밝혀졌다. 이상 몇 가지 보건간호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였거니와 국가에서는 국민 보건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보건간호원의 많은 수와 질적으로 우수한 보건간호원의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에서 일상에 공중보건사업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점점 짙어져감에 따라 간호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보다 좋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있는 보건간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교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즉 4년제 간호대학 과정에 충분히 공중보건학을 통합하여 졸업후 임상간호와 보건간호의 자질을 가질수 있도록 하며 3년제 간호학교 과정에도 좀더 실제적인 교과과정을 작성하여 졸업 후 임상에서도 공중보건을 통합한 임상간호를 실시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최소 교수진들이 보건간호에 대한 이론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겠고, 문교부와 보사부가 협조하여 실습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최소 8주~12주를 실시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학생 실습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보

전소 이외의 병원 외래진찰소에서 보건교육, 환자발견, 면접기교, 퇴원환자의 계속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등을 지도하여, 학교 1학년 시초부터 공중보건에 대한 교육을 기초교육에 통합하여 실시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보건간호교육의 미래상을 더듬어 볼 때 기초교육과정에서 보건간호에 대한 확실한 이념을 넣어주고 공중보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갖게 함으로서 앞으로 한국 보건간호 사업은 맑게 전망될 것이다.

III. 보건간호 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어느 나라이고 보건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듯이 우리나라에도 보건문제가 너무나 많으며 특히 보건간호 문제는 한 사업에 비해 더 심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조직의 모순성

중앙 행정부부터 도(道)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조직인 조직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통일과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앙관서에는 의정(醫政), 보건(保健)의 두 국(局)에서 보건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도(道)에는 보건 의약과(課)이며, 보건소 단위에는 그나마 보건간호과(係), 과(課)가 없어 방역(防疫) 또는 보건 지도체(指導係)에 속해 있으므로 제대로 보건간호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원(人員)이나 사업의 범위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간호원이 제대로 독립된 조직이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난점을 가져오고 있다.

2. 요원 부족

세계 각국이 전문간호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간호원과 특히 보건간호원의 부족은 공중보건 발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확장되는 보건 의료망 설치에 따라 요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4년부터 의료보조원법을 마련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한 간호보조원을 단기 교육으로(현재 9개월과정) 대량 양성케 되었으며 이를 감독키 위한 수단으로는 도에 감독간호원 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타국의 인구 5,000 : 1의 보건간호원 비율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업무과증, 고통의 불편 등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인구 약 20,000 : 1의 보건간호원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이같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바람직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에는 힘든 일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자격있는 보건간호요원의 양성 문제가 시급한 일이다.

3. 보건간호원의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보건간호원에 대한 자격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보건소 직제상의 보수으로급수가 가장 낮은 5급이 대부분이고, 4급은 서울시에만 해당되고 있다. 또한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고 전문교육을 끝했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분야에서는 별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1966년 충남 고령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보건소 보건간호원 147명 중 66명인 44.9%가 정식 직원이고, 81명인 55.1%가 임시직이며 49명인 33.3%는 자리가 비어 있음을 밝혀냈다. 본조사에서 대부·분의 보건간호원도 임명 후 12개월 이내에 40%의 이동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보건사업 발전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4. 전문사업(Specialized Service)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

1965년 국립보건원에서 필자가 조사 연구한 서울시 보건소 간호원 업무실태를 보면 전체 업무 중 53.35%가 가족계획, 25.04%가 결핵사업에 소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보건요원들이 결핵, 가족계획 사업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인원, 경비, 시간의 소비와 사업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학교, 양호교사 및 산업장 간호원의 업무한계가 애매한 점

양호교사(school nurse), 산업장, 간호원(occupational nurse)도 업연한 보건간호원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는 응급치료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 지식 및 행정적인 결여로 친지한 학동건강관리 및 산업장관리를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상 문제점을 앞에 놓고 장래 보건간호사업을 전망해 보건데, 이 여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모든 의료분야 종사자, 각계의 지도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행정부에서 보건간호사업에 대한 확고한 법적 뒷받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이 하나 하나 해결 될 것으로 본다.

보건사업 발전은 장시일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간호사업도 장구한 시일과 시련 끝에 선진국 같이 그 어느 땐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리라 전망된다.

IV. 결 론

오늘날 보건간호 사업은 전문 간호사업의 특수 분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간호원은 health team의 한 member로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업무도 광범위하다. 보람찬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좋은 자격있는 보건요원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이 사실이며, 현재 보건간호원의 훈련 및 보건간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상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전의하고자 한다.

즉 교육과 사업은 같은 비중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교육을 관장하는 문교부와 사업을 관장하는 보사부가 상호 협조하여 기본 간호 교육과정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공중보건학을 충분히 기초교육에 통합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로 보건간호원의 자격 규정을 최소 공무원 임용령에라도 삽입하여 직종(職種), 직위(職位)를 별도로 분류도록 하며, 보건간호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직급을 올리고 보건소 단위에는 독립된 보건간호과(課), 계(係)를 설치한다. 보건간호원에게는 별도로 볍지 수당제를 두고 연고지 간호원을 우선적으로 일용하며, 간호원 수급을 위해 군단위(郡單位) 간호 장학제도를 두어 자기 지역사회에 최소 어느 기간 봉사토록 장려한다. 현재 가족계획요원(family planning worker), 결핵요원을 전원 양성화하고 전문사업에서 다목적(多目的) 사업으로 지향토록 하며, 각도에는 간접 직위의 간호원수를 늘리고 달단 보건지소까지 간직체계를 일원화한다.

참고 문헌

- (1) 국립보건원 월보
The Report of NIH 1965, 1964
- ① 보건소 요원 훈련사업에 대한 평가
- ② 우리나라 보건소 요원에 대한 고찰
- (2) 국립보건원 월보, 보건소 보건간호원 업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1965)
- (3) Analysis and Report on The Nursing Personnel Survey in the City and Gun Health Centers Chung Chung Nam Do..
- (4) WHO, Aspect of Public Health Nursing WHO Public Health Papers #4 Geneva WHO 1961.
- (5) 보건간호학 이금천 저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이표희씨 도미=

보부의 의정국 간호사업과 보건간호체장으로 수고해 오던 이표희씨가 지난 4월 17일 미국 백사스주로 떠났다.

1951년 대전간호학교 졸업후 충청간호연구원을 거쳐 인도 칼카타 인도공중보건원을 수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건간호사업에 이바지한 알찬 일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예전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건간호사업에 가장 애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보건간호원으로 일해온 이표희씨는 늘 “보건간호사업은 보건간호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일버릇처럼 들려주던 얘기가 기억난다.

이런 일그릇한 일꾼을 잊게 되는 아쉬움을 들히 없지만 몇년 후 다시 돌아와 소신껏 일해 보겠다는 다짐이 감사하며 안녕!